

喻昌의 “秋燥論”의 燥病에 대한 내용 분석

金 南一¹⁾

Analysis of the Dry disease of Yuchang's "Autumn dry theory"

Kim Nam il

In 『EuiMoonBubRyool』 chapter 4, Yuchang criticized previous doctors since “damaged by wet in autumn” written in 『Somun』 must be corrected as “damaged by dry in autumn”. The reason why the sentence must be corrected is that dry and damp are different atmosphere. He tried to explain with changes of season and the rapid pulse in autumn is said to be a contradiction in 『Naekyung』 and it supports Autumn dry theory.

He criticized previous doctors about many incorrect points of dry disease through various aspects. Criticism on Dongwon's treatment, Dangye's medical theory and not having a treatment, and Mujungsoon's treatment and etc. are the examples. Symptoms and treatment of Dry disease that Yuchang commented helped in deepening the contents and widening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disease.

1. 서론

“秋燥論”은 喻昌(1585~1664)이 1658년에 편찬한 『醫門法律』에 수록되어 있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는 글이다. “秋燥論”에서 喻昌은 이전의 醫家들이 『素問·生氣通天論』에 나오는 “秋傷於濕, 上逆而咳”와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나오는 “秋傷於濕, 冬生咳嗽”의 문장을 글자만 좇아 해석하여 가을에 생기는 燥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문장 가운데 “秋傷於濕”은 잘못되었고 “秋傷於燥”라야 맞다고 주장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醫學史에서 많은 의미를 가진다. 먼저, 燥病에 대한 내용을 심화시켜주어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혀주었다. 燥病에 대해서는 이전에 劉河間이 『素問玄機原病式』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이 전부였던 것을 깊이 있게 논술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다. 둘째, 燥病의 계절성 인식을 심어주어 氣왕의 內傷中心의 단선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셋째, 이와 같은 새로운 인식은 후대에 溫燥, 涼燥 등 분화된 燥病의 개념을 만들어내어 燥와 관련된 질병의 치료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燥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醫門法律』의 “秋燥論”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喻昌과 『醫門法律』에 대해 살펴본 후, 秋燥論의 이론적 근거, 내용을 설명하였고, 燥病에 대한 喻昌의 李東垣, 朱丹溪, 繆仲醇 비판을 나열하였고, 다음으로 喻昌이 주장하는 燥病의 機轉, 證狀, 治療를 써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喻昌이 法條文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秋燥論의 “律五條”를 번역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2. 喻昌과 『醫門法律』에 대하여

喻昌은 字가 嘉言이고, 別號가 西昌老人으로, 대략 1585년에 태어나서 1664년에 죽은 의학자이다. 그는 六經詩文 등에 뛰어났지만 明나라 말기에 淸나라의 침입으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은거생활을 하면서 불교를 깊이 연구하였다. 이후 의학을 깊이 연구하여 1644년에서 1661년 사이에 蘇南의 名醫 錢謙益의 초대에 응하여 江蘇省 常熟으로 옮겨가 진료를 시작하여 명성을 떨쳐 張路玉, 吳謙齊 등과 더불어 淸나라 초기의 3대 명의로 이름을 떨쳤다.²⁾

2) 이상의 내용은 陳大舜 외,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 563쪽을 참조.

『醫門法律』은 그의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저술이다. 이 책은 그가 1658년에 편찬한 종합의서로 모두 6권이다. 書名에 “法律”이란 제목을 붙인 것은 辨證治療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를 禁例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제1권은 四診의 法律과 『黃帝內經』, 『傷寒論』의 證治를 설명하고 있고, 제2권~6권은 風, 寒, 暑, 濕, 燥, 火와 雜證을 分門하여 각종 질병의 證治에 대하여 논하였다. 매 門마다 ‘論’을 두어 各病證의 病因, 病機를 분석하고, 다음에 ‘律’을 두었다.

3. 秋燥論의 이론적 근거

喻昌은 『醫門法律』의 권4에 별도로 “秋燥論”을 두어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하였다. 그는 『素問·生氣通天論』에 나오는 “秋傷於濕, 上逆而咳”와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나오는 “秋傷於濕, 冬生咳嗽”의 문장에서 “秋傷於濕”은 잘못되었고 “秋傷於燥”라야 맞다고 주장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後代醫家들이 이 문장을 글자만을 좇아 해석하면서 그 잘못된 점을 살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³⁾

그는 먼저, “秋傷於濕”가 “秋傷於燥”라야 맞다는 논리를 燥와 濕이 다른 기운이라는 데에서 착안하였다. 그는 『醫門法律·秋燥論』에서 “燥는 天의 氣이고, 濕은 地의 氣이다. 水는 濕한 데로 흘러가고, 火는 燥한 곳으로 가서, 각각 같은 부류를 좇으니, 이것이 이기면 저것이 저서 두가지가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 봄에 地氣가 움직여서 濕이 이겨서 이에 草木이 暢茂하며, 가을에 天氣가 肅(엄숙함)하여 燥가 이겨서 이에 草木이 黃落한다. 그러므로, 春分 이후의 濕과 秋分 이후의 燥는 각각 그 政을 주관한다.”라고 하였다. 그는 濕과 燥가 하나는 地氣이고 하나는 天氣이기에 전혀 다른 기운인 것이 분명하므로 “秋傷於濕”인지 “秋傷於燥”인지를 분명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그는 『內經』의 病機十九條에서 燥에 대한 내용을 누락시킨 것과 이에 근거하여 “秋傷於濕”이라는 논리를 계속 이어온 歷代醫家들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로, 그는 이러한 秋燥論을 四時의 변화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에 대

3) 『醫門法律·秋燥論』의 “歷代諸賢, 隨文作解, 弗察其訛.”

해 “무릇 가을에는 갑자기 燥해지는 것이 아니다. 크게 더운 다음에 서늘한 기운이 생겨나는데, 서늘한 기운이 생겨난 다음에 熱이 풀어져서 점차 크게 서늘하게 되어 燥습이 이에 行하게 된다. 經에서 ‘陽明이 이르는 바는 처음에는 燥하고 중국에는 涼하다’⁴⁾고 하였는데, 이 또한 잘못된 문장이다.”(『醫門法律·秋燥論』)라고 하였다. 초가을로 접어들어 처음에는 이슬로 촉촉해지고 하늘은 맑고 오곡과실이 익어서 濕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 점차 涼氣가 지배하면 점차 燥氣로 바뀌고 만다는 것이다. 이어서 음력 10월이 되어 따뜻해지는 것은 涼氣가 끝났으므로 寒해야 하는데 도리어 溫해지는 것은 燥氣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셋째, 脈象에서 가을에 數脈이 禁忌脈인 것이 『內經』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秋燥論을 뒷받침해준다고 하였다. 그는 『素問·至眞要大論』에 나오는 “『脈要』에서 ‘봄에는 沈脈이 나타나지 말아야 하고, 여름에는 弦脈이 나타나지 말아야 하고, 겨울에는 濇脈이 나타나지 말아야 하고, 가을에는 數脈이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를 일러 四塞이라고 한다.(脈要曰: 春不沈, 夏不弦, 冬不濇, 秋不數, 是謂四塞.)”라는 문장에 근거하여 가을에 數脈이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고 『內經』에서 한 것은 가을을 秋氣가 주관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⁵⁾

4. 秋燥論의 내용

秋燥로 인하여 병이 되는 것은 『素問·陰陽應象大論』의 “燥勝則乾”의 원리를 따른다. 여기에서 “乾”은 “마른다”는 뜻이다. 그는 “마른다”는 것에 대하여 “밖에서 말라서 피부가 갈라지고 들뜨는 경우가 있고, 안에서 말라서 精血이 마르는 경우가 있고, 津液이 말라서 營衛의 氣가 쇠퇴하여 肉이 사그라들고 거죽이 뼈에 착 달라붙는 경우가 있으니, 그 大經과 小絡에 따라 배속되는 上下, 中外, 前後를 따라 각각 病所로 삼는다. 燥氣가 이기는 것을 또한 燠(마를 한)이라고도 한다.”(『醫門法律·秋燥論』)라고 하였다. 이 燥氣로 인하여 肝木을 분질러뜨리기도 하고 肺金 자신도 손상되게

4) 『素問·六元正紀大論』의 “陽明所至, 爲燥生, 終爲涼”을 말함.

5) 『醫門法律·秋燥論』의 “秋月之所以忌數脈者, 以其新秋爲燥所勝, 故忌之也.”

된다. 이것은 肺金의 治節作用에도 영향을 미쳐 清肅의 令도 不行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素問·至眞要大論』의 “欬不止而白血出者死.”라는 말과도 통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白血은 淺紅色의 피를 말한다. 이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肺金 자체가 망가진 증거라는 것이다.

『素問·至眞要大論』에 나오는 十九病機 가운데 燥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조문은 없지만, 燥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 두개가 있다. “諸氣臏鬱, 皆屬於肺”와 “諸痿喘嘔, 皆屬於上”이 그 내용이다. 그는 “諸氣臏鬱, 皆屬於肺”는 肺가 燥에 속한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肺가 濕에 속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만약 肺氣가 燥하지 않다면 인체의 모든 氣가 清肅之令을 품부받아서 기운이 온몸의 사방으로 잘 퍼져나갈 수 있게 되어 臏鬱의 상태가 되지 않게 된다. 이것은 肺金이 火熱의 剋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火熱이 傷肺金하지 않는 경우가 臏鬱의 상태, - 즉, 숨이 가쁘고 가슴이 그득하면서 답답한 상태 - 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諸痿喘嘔, 皆屬於上”의 “上”은 肺를 말하는 것이지 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上을 上焦로 해석하여 心肺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心이 痿喘嘔와 별로 연관관계가 없는 것을 살펴볼 때, 모순 되는 것이다. 肺燥가 심하면 肺葉이 痿하게 되어 不用하게 되고 肺氣가 거슬러 올라가서 喘이 생기고 음식물이 隔膜을 지나가기 어려워져 嘔가 생긴다. 痿, 喘, 嘔의 세가지는 燥證이 극에 달한 증상인 것이다.

5. 李東垣, 朱丹溪, 繆仲醇 비판

喻昌은 秋燥論을 전개함에 있어 李東垣을 治療法의 잘못을 들어 비판하였다. 그는 李東垣이 燥를 치료하는 처방들을 단지 營血을 기르고, 肝腎虧損을 補하고, 二便閉結을 다스리는 데에만 국한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李東垣이 燥病에 해당하는 肺消를 치료하는 처방 안에도 白豆蔻, 華澄茄 등을 쓰고, 諸氣를 치료하는 약에도 辛香한 성질의 行氣시키는 약을 쓰는데, 이것은 燥를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치우친 점이 있다고 하였다.

朱丹溪도 마찬가지로 비판한다. 우선, 肺燥를 논하고 있는 醫論이나 處方이 하나도 없고, 단지 熱鬱의 湯 아래에 “陰虛而得之者”, “有胃虛食冷物, 抑遏陽氣於脾土中而得者”라고만 말하고는 치료법은 發熱條文에 있다고 하였고, 그 치료법 조차도 陰虛도 陽陷도 發熱도 아니라 항상 스스로 蒸蒸하여 풀리지 않는 것들이다. 여기에서 喻昌은 蒸蒸하여 풀리지 않는 것은 肺氣가 熱하여 內蒸되어 外達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朱丹溪가 처방으로 連翹, 薄荷葉, 黃芩, 山梔仁, 麥門冬, 甘草, 鬱金, 瓜蒌皮 등 여덟개의 약물에 竹葉을 引經藥으로 쓰고 있고, 그 뒤에 蒼朮, 香附子, 撫芎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 問答을 설정하여 “火就燥, 燥藥皆能助火, 故不用也”라고 하고 있다고 하여 燥가 火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熱鬱의 條文에서 燥한 藥이 燥를 조장하여 肺金을 상하게 할 것을 두려워한 것을 은연중에 알 수 있지만, 燥病에 대한 별도의 條文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繆仲淳⁶⁾은 燥病을 치료할 때, 四君子湯, 四物湯, 二冬(天門冬, 麥門冬), 二母(知母, 貝母), 沙參, 玄參, 黃芪, 山藥, 蘇子, 橘紅, 桑葉, 枇杷葉, 杏仁, 棗仁, 扁豆, 蓮心, 瓜蒌, 五味, 升麻, 葛根, 柴胡, 前胡, 黃芩, 黃連, 梔子, 黃柏, 滑石, 石膏, 菊花, 枸杞, 牛膝, 續斷, 薏苡, 木瓜, 胡麻, 首烏, 豆豉, 霜梅, 膠飴 등의 무리에서 淸平일률적으로 선택한다고 喻昌은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세상사람들이 이러한 약들을 써보고 효과를 보기만 하면 繆仲淳이 하나의 학파를 만들었다느니 하고, 本草에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면서 무난한 약재 오육십종을 선택하여 사용한다고 비난하였다. 이어서 喻昌은 繆仲淳이 內傷으로 인한 燥는 치료할 수 있어도 外感으로 인한 燥는 치료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6. 燥病의 機轉

그는 燥病이 생기는 機轉을 설명함에 『素問·氣厥論』의 “心移熱於肺, 傳爲鬲

6) 繆希雍(1546~1627?)을 말함. 중국 명나라 때의 의학자. 字는 仲淳, 호는 慕台. 江蘇省 常熟 사람이다.

消.”라는 문장을 인용하여 消渴과 연결시키고 있다. 腎水가 족하여 心과 만나게 되면 水升火降이 이루어져 肺에 心火가 전달되지 않아 燥病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만약 腎水가 不足한 경우라도 腸胃의 津血이 협동하여 上供된다면 肺가 상하지 않게 되고, 中下의 津液이 모두 고갈되었다 하더라도 上焦의 물기운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肺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素問·陰陽別論』의 “二陽結謂之消.”라는 문장도 消渴을 燥病과 연결시켜 설명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여기에서 二陽이란 手陽明大腸과 足陽明胃을 말한다. 手陽明大腸이 熱結하게 되면 津液이 부족해지고, 足陽明胃가 熱結하면 血이 제대로 영양하지 못하게 되어 消渴病이 생기게 된다. 『內經』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문장은 문장은 다른 것 같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로 통한다. 消渴 때 나타나는 舌上赤裂, 大渴引飲 등은 消渴病의 일반적 증상이다. 喻昌은 이러한 증상에 白虎加人參湯으로 그 肺를 구하라고 하였다. 이 처방은 “諸氣臞鬱”, “諸痿喘嘔” 할 것 없이 모두 치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응용하라고 주장하였다.

喻昌은 또한 肺燥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 『素問·陰陽別論』의 문장을 인용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素問·陰陽別論』에는 “二陽之病, 發心脾, 有不得隱曲, 女子不月, 其傳爲風消, 其傳爲息賁者, 死不治.”라는 문장이 나온다. 喻昌은 이 문장의 有不得隱曲과 女子不月の 사이에 “男子少精”이라는 문장을 첨가하여 보다 더 논리를 견고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논리는 이러하다. “무릇 燥하여서 男子의 精液을 衰少하게 하거나 女子의 津血을 枯閉시키는 것은 極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 처음은 隱曲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이것이 이어지면 胃의 燥가 脾에 傳入되어 風消가 된다. 風消는 風熱이 치성하여 肌肉이 消削되는 것이다. 大腸의 燥가 肺에 傳入되면 息賁이 된다. 息賁이란 숨쉴 때에 소리가 나면서 위로 치받쳐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이에 胃와 腸이 心脾와 합해져서 함께 肺金의 燥를 이루는 것이다.”

7. 燥病의 證狀

燥病의 성질은 火熱과 같다. 火熱이 이기면 金이 衰하고 風이 熾盛하게 되는데, 風은 濕을 이기고 熱은 液을 소모시키므로 陽實陰虛로 바뀌어 風火熱의 기운이 水土

를 勝하여 燥가 된다. 이것이 喻昌이 주장하는 燥가 나타나는 과정이다. 喻昌은 燥로 인해 생기는 증상을 몇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근육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근육계통의 이상이 있다. 肝은 筋을 主하는데, 風氣가 심한데다가 燥熱까지 덧붙여지면 胸膈에 津液이 몰려서 筋脈을 영위하지 못하여 筋이 燥하게 된다. 勁強緊急, 口噤, 癱瘓, 昏冒, 僵仆 등이 이러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風熱燥의 기운이 심하여 表에 拂鬱되어 있지만 裏氣는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善伸數欠, 筋脈拘急, 때때로 惡寒, 혹은 筋惕而搐, 脈浮數而弦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만약 風熱燥가 裏까지 鬱滯시켰다면 반드시 煩滿, 悶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燥는 表裏氣血의 分別을 두어야 한다.

五臟의 五志의 火가 眞液이 있어 제대로 다스려지면 凝聚되어 움직이지 않게 된다. 만약 腎과 胃의 水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五臟의 眞陰이 모손되어 五志의 火가 한꺼번에 內動하여 三消의 병이 만들어진다.

喻昌은 燥病에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渴症을 꼽았다. 그런데, 이 渴症은 所屬되는 部位와 臟腑와 原因에 따라 다르다. 그는 이를 臟腑와 原因에 따라 나누고 있다. “有心肺氣厥而渴, 有肝痺而渴, 有脾熱而渴, 有腎熱而渴, 有胃與大腸結熱而渴, 有小腸痺熱而渴. 有因病瘧而渴, 有因素食肥甘而渴, 有因醉飲入房而渴, 有因遠行勞倦遇大熱而渴, 有因傷害胃乾而渴, 有因風而渴.”이 그것이다.

8. 燥病의 治療

喻昌은 燥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補腎水陰寒之虛, 而瀉心火陽熱之實, 除腸中燥熱之甚, 濟胃中津液之衰, 使道路散而不結, 津液生而不枯, 氣血利而不澁, 則病日已矣.”라고 하였다. 즉, 이를 정리하면 補腎水, 瀉心火, 除腸中燥熱, 濟胃中津液으로 집약된다. 이렇게 해주면 기운이 소통되는 길이 열려서 울체가 없어져 津液, 氣血이 원활해져서 병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喻昌은 燥로 인해 津液이 소모되어 大便이 結硬된 경우에 함부로 瀉下시

키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飢飽勞逸하여 胃氣를 손상시켰거나 辛熱하면서 厚味한 것을 먹어서 火邪를 도와서 血中에 은복되면 眞陰을 耗損시켜 津液이 虧損되게 되어 大便結燥가 생기게 된다. 喻昌은 張仲景이 小便은 나오지만 大便이 硬할 때는 攻下하지 말고 脾約丸으로 潤之시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고 하였다.

9. 秋燥論의 律五條

『醫門法律·秋燥論』의 마지막 부분에는 律五條가 나온다. 이것은 秋燥論과 관련된 다섯가지의 警戒가 되는 내용을 법조문의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무릇 가을의 燥病을 濕으로 여기고 잘못 치료하는 것은 칼을 잡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전에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의 허물은 남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지금에는 예전에 범했던 것이 사람을 손상시킨 것이 많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치장할 때 쓰는 거울이 앞에 있어도 후회한들 이미 늦었다.

② 무릇 燥病을 치료할 때, 燥가 氣에 있는데 血을 치료하는 것, 燥가 血에 있는데 氣를 치료하는 것, 燥가 表에 있는데 裏를 치료하는 것, 燥가 裏에 있는데 表를 치료하는 것, 藥이 病에 적합하지 못한 것 등은 의사들의 허물이다.

③ 잡병을 치료함에 燥證을 겸하여 끼고 있는 경우에 燥藥을 잘못 사용하여 燥病으로 바꾸어 危困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의사의 죄이다.

④ 燥病을 치료할 때는 肝肺 두 장에 나타나는 증상을 분별하여야 한다. 肝臟에 증상이 나타나면 肺燥를 치료해도 可하다. 만약 肺臟에 증상이 나타나서 도리어 肝을 치료한다면 이는 앓아서 잘못하는 것이니, 의사의 죄이다. 肝臟에 燥證이 나타나면 마땅히 급히 肝葉을 求하여 焦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肺金을 淸하게 하여 燥의 本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만약 肺金에 自病이 생겨 肝에 미치지 못하면 오로지 肺를 救하는 것에 전력해야 한다. 焦枯와 공포감이 곧 이르는데 여전히 힘을 나누어 천천히 도모할 것인가?

⑤ 무릇 燥病을 치료함에는 燥를 치료하는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서 단지 潤劑

로 潤燥만 시키면 비록 깊이 손상되지는 않을지라도 치료시일을 놓쳐서 粗工이라고 명성이 떨어질 것이니, 마땅히 경계할지이다.

10. 결론

喻昌은 『醫門法律』 권4의 “秋燥論”에서 『素問』에 나오는 “秋傷於濕”이라는 문장은 “秋傷於燥”라야 맞다고 주장하면서 歷代醫家들을 비판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고쳐야 하는 이유를 먼저 燥와 濕이 다른 기운이라는 것을 들면서 이를 四時의 변화로 설명하고자 하였고, 다음으로 脈象에서 가을에 數脈이 禁忌脈인 것이 『內經』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秋燥論을 뒷받침해준다고 하였다.

그는 歷代醫家들의 燥病에 대해 잘못된 점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李東垣의 치료법, 朱丹溪의 醫論과 處方이 없음, 繆仲淳의 치료법 등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喻昌이 언급하고 있는 燥病의 증상, 치료 등에 대한 내용은 燥病에 대한 내용을 심화시켜주어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혀주었다.

11. 참고문헌

- (1) 喻嘉言醫學全書, 明清名醫全書大成,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 (2)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7.
- (3) 陳大舜 외,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